

지역 소식통

부안군, 4대 폭력 근절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캠페인

부안군은 2일 개최된 5월 열린 공감의 날을 맞아 부안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근절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일 첫째주에 개최하는 열린 공감의 날은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군은 이날을 캠페인 날짜로 지정해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매일 간 부공무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최영두 부군수, 한동일 관공부지국장, 임택명 경제산업국장, 박찬병 보건소장이 함께했다. 캠페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유형에 대한 구분과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신고·상담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금품수수 금지, 적극행경, 갑질 근절, 부정청탁 방지 등을 웹툰 및 포스터를 활용해 홍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농단 물류비·폐수배출 위탁처리비 최대 1700만원 지원

정읍시가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상 판매액 기준 소기업이다. 먼저 물류비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신청하면 매출액에 따라 신청액의 일정 부분 금액을 최대 15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미래산업과(☎063-539-566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서 '혁명'의 역사 공유한다

## 9~11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개최

'혁명'이라는 공통된 역사를 공유하는 세계 도시 간 연대회의가 정읍에서 열린다.

정읍시는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5월 9일부터 3일간 시 일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세계화를 위해 세계의 주요 혁명도시들을 초청해 매년 연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연대회의의 주제는 '혁명과 평화'다. 동학농민혁명이 '보다 나은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농민들의 저항이었고, 혁명의 미래 정신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혁명과 평화'를 주제로 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읍시를 포함해 모두 5개국 5개 도시가 참여한다. 먼저 체코의 프라하로 알려진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1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참여해 '평화와 생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혁명'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한다. 이와 함께 아일랜드의 코크시, 독일 뮌헨,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필리핀 칼라바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코크시와 알타그라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시장이 직접 참석해 도시 간 교류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의 첫날인 9일에는 정읍시와 참여 도시들 간의 공식 회의가 열린다. 특히 코크시는 정읍시와 문화역사 교류에 대한 공식 협약을 맺고 차후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뮌헨은 2025년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읍시와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알타그라시아는 지난해 방문 이후 시의회·시민들과 교류 행사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향후 양 도시 간의 공식 교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국제포럼이 열린다. 오전에는 해외 도시 참가자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이 황토현의 정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사(불멸 바람길) 앞에서 참배와 헌화 행사를 갖고 참가 도시들의 연대와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정읍을 비롯한 4개 도시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기념일 행사에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시는 올해로 3회째 이어지는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발전시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선도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연대회의를 통해 정읍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을 미래 정신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혁명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2일 계획면 창북리 이종원(45)씨 농가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이른 새벽부터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농가를 격려했다.

## 부안군 2024년 첫 모내기 시작

### 권익현 부안군수, 모내기 현장 방문 농민 격려

권익현 부안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일 계획면 창북리 이종원(45)씨 농가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이른 새벽부터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농가를 격려했다.

이번 모내기는 2024년 첫 모내기로 극조생종 품종이며 성장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해 기상 이변이 없이 적기 영농이 추진된다면 오는 8월 말에는 햅쌀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5월 한달간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못자리상토와 병해충 공

동방제약제, 광역방제기,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어촌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비 절감과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모내기 작업이 탈없이 잘 이뤄지고 재해 없이 풍년을 맞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고품질 쌀 생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 개최

### 안정적인 농촌인력수급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일 오전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인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농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주거제공이 어려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총 25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950.4㎡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공동취사장, 다목적실, 2층부터 4층까지는 2인실 숙소로 구성되어 지난해 12월에 착공 이날 기숙사 준공을 완료했다.

준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 및 군의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도 관계자, 김기욱 선운산농협 조합장을 포함한 농협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식전 공연과 함께 사회자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된 준공식은 기숙사 준공 경과보고 후 내빈들의 축하인사와 함께 기숙사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일 오전 농업인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

또 대산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농가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고용주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총 4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수용이 가능하며 1차로 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 30여명이 입주했다. 선운산농협과 고창군이 협업해 기숙사를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농촌인력 수급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

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으로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돼 안정적인 농촌인력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안정적 인력수급을 통한 적정 인건비 관리로 고창군민에게 봉사하는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 437억원 규모 '농촌협약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13개 사업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음 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437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8억원) △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5억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46억원) △무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6억원) △해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8억원) △흥덕면 송암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15억원) △성송면 어림·계양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96억원) △축산악취개선사업(21억원) △악취추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사업(4000만

원) △공음면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부안면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4억6000만원) △고창군 전역 농촌형 교통모텔(18억원) 등이다.

아울러, 고창군 상위거점인 고창읍이 지난 생활 서비스 기능을 13개 읍·면에 전달하는 다:드림 뉴리터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균형 격차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고창군에서 본래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30개의 사업과의 연계된 계획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